
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	보 도 자 료	
		배포 일시	2009. 5. 25(월) / 총 3 매(본문 2, 붙임 1)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상도, 사무관 김상수, 주무관 임현아 • ☎ (02)2110-6475, 6476, 8762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북극항로 이용권 확대되어 미주 여행길 단축

주 30회⇒ 주 60회

□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'09.5.21(목)~5.22(금)간 러시아 항공청에서 개최된 한·러시아 항공회담에서 북극항로 이용에 필요한 영공통과권을 주 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하고, 편명공유시 운항횟수 제한도 폐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.

* 수석대표 : (우리측) 장종식 항공정책관
(러시아측) Mr. Oleg O. Demidov 교통부 항공국 부국장

○ 이에 따라, 한·러시아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이고, 항공사의 효율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 증대와 더불어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이번 한·러 항공회담에서

○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미주 동부지역 운항시 이용하는 캄차카항로(Kamtchatka Route)보다 약 25분 정도 단축 가능한 북극항로(Cross Polar Route)를 주30회에서 주60회로 증회

(‘09.7 10회, ‘09년 동계 10회, ‘10년 하계 10회)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류비(연간 약 30억원 규모)와 운항시간 절감 등 항공사 경쟁력 확보 및 승객편의 제고가 기대되고

○ 그간 항공사가 노선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폐지되어 항공사간의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

○ 아울러, 그 동안 목적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던 이르쿠츠크를 목적지점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여행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.

참고자료

감차카 항로와 북극항로 비교

- 감차카 항로 : 북미 중·동부→앵커리지→감차카→동해
→인천 (13시간 48분소요)
- 북극항로 : 북미 중·동부→러시아 동북지역→하얼빈→
대련→서해→인천 (13시간 24분소요)

